

잇단 충격패 KIA '잘 지는 법'도 배워라



이기는 법보다 '잘 지는 법'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 1위 KIA 타이거즈의 우울한 가을이다.

4월 14일을 시작으로 KIA는 1위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5일까지 성적은 75승 1무 46패로 승률은 0.620을 넘고 있다.

'5할' 고지를 앞두고 5번이 주저앉았던 지난해에 비하면 상전벽해의 시즌이다. 유일한 승률 6할 팀으로 군림하면서 지는 날보다 이기는 날이 더 많은 시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KIA 야구를 향한 팬들의 시선이 굵지 않다. 1위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허를 찌르는 패배가 이어지면서 팬들의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두 경기 연속 끝내기 패는 치명적이었다.

KIA는 지난 3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KBO리그 사상 처음으로 9회말 6점 차 리드에서 패한 팀으로 이름을 남겼다. 결과도 결과지만 패배로 가는 과정이 문제였다.

짚은 등판과 휴업 모드의 '극과 극'의 불펜이 어우러진 패배였다. 6-1로 앞선 9회말 1주일 동안 벤치만 지키던 한승혁이 등판했고, 제구 난조에 수비 도움까지 받지 못하자 불펜이 바로 돌아갔다. 심중섭이 선발 투수 4일 만에 기용됐고, 김진우 역시 2군 선발 뒤 4일 만에 1군 연투에 나섰다. 올 시즌 두 차례 3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던

마운드 주먹구구 운영에 수비는 예측불허 기용 넥센·LG전 2경기 연속 속터지는 끝내기 패배

박진태까지 모두 불넷을 헌납하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결과는 7-8 끝내기 패였다.

비정상적 마운드로 인한 끝내기 패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게 목표였던 5일에도 KIA는 끝내기 패의 제물이 됐다.

이번에도 마운드가 매킨처럼 돌아가지 못했다. 하루 앞당겨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 선발로 나선 팻딘이 눈부신 피칭으로 이닝을 지휘했다. 7회까지 양석환의 솔로포로 내준 1점이 유일했던 실점. 7개의 탈삼진도 뿔아내며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던 팻딘의 등판은 85구에서 멈췄다.

8회말 3-1에서 김운동이 투입됐지만 1사에서 안타와 불넷을 내주자 빠르게 투수교체가 이뤄졌다. 올 시즌 우투수(타율 0.313)보다 좌투수(타율 0.372)에게 좋은 성적을 낸 박용택의 상대는 좌완 고준호였

었다. 이렇다 할 힘 대결도 해보지 못하고 불넷으로 만루가 된 뒤 김세현이 급히 마운드로 올랐다.

결과는 패전 김세현이었다. 그것도 연장 10회말 끝내기 패배였다.

1사 만루서 노련한 정성훈에게 동점 적시타를 내준 김세현은 이후 실점 없이 8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고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팀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승부는 연장까지 갔고, 김세현은 10회에도 등판해야 했다. 2사 1루에서 포수 패스트볼로 3루를 내준 김세현은 고의사구 뒤 김재율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2.1이닝을 지키면서 김세현이 던진 공은 37개였다.

85구로 7이닝을 막았던 팻딘의 후투가 묻혀버린 경기였다. 팻딘은 자신의 KBO

데뷔전이었던 4월 1일 삼성 원정경기에서도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9회말 불펜진이 7실점을 하는 장면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나마 이 경기는 9-7, 진담승이었다.

지난 6연패 기간 KIA의 공수는 다르게 돌아갔다. 움직임이 필요했던 공격은 특별한 변화 없이 정제됐었고, 안정감이 필요했던 수비는 깜짝 기용과 성급한 교체로 요동쳤다. 퓨처스 리그에서 올 시즌 단 한 차례 등판에 그쳤던 배형찬의 선발 투입, 지난 시즌 고척 연패 행진의 시작점이었던 유격수 김주형 카드의 재사용 등은 충격적인 대패를 낳았다. 외야수로 전향한 '이적생' 유재신의 유격수 도전도 아찔할 결과를 낳았다. 마운드의 보직 파고와 예측 불허의 투입은 시즌 내내 언급되던 문제이기도 하다.

극적인 승리보다 '잘 지는 경기'를 보고 싶은, 1위 팀 팬들의 이상한 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6이닝 1실점 호투 선발 경쟁 일단 우위

6일 경기는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한테 중요한 시험대였다.

좌완 투수인 류현진은 이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앞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번 주까지 6인 선발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5선발 로테이션을 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구 최강' 투수로 평가받는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와 알렉스는 최근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일본인 투수 다라빗슈 유와 리치 힐도 류현진보다 팀 내 입지가 탄탄하다.

결국, 류현진과 다른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는 마지막 남은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 결과 일단은 우위를 점했다.

그는 6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며 1실점 했다. 불넷은 고의사구 포함 5개를 내줬고, 삼진은 7개나 잡았다. 투구 수는 정확히 100개였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1km까지 나왔다.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1-1로 맞선 7회초 마운드를 넘기면서 시즌 6승 달성(5승 7패)에는 실패했지만, 평균자책점을 3.71에서 3.59로 낮췄다.

류현진과 맞대결을 펼친 애리조나의 선발투수가 잭 그레인키였다는 점도 류현진의 호투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레인키는 내셔널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다저스 소속이던 2015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애리조나와 6년 총액 2억6500만 달러(약 2376억6000만원)에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그레인키는 이날 7이닝을 탈삼진 6개를 곁들여 4안타(피홈런) 1볼넷 1실점으로 막았다. 류현진이 그레인키와 거의 대등한 피칭을 선보인 것이다.

선발 경쟁자인 마에다는 7일 애리조나전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호투가 절실했던 이날 경기에서 기대만큼 잘 던졌다. 이제 마에다 투구를 지켜볼 차례다. 류현진한테 운이 따른다면 포스트시즌 선발 자리에 대한 희망도 품어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강정호 연금 수령 자격 박탈

승마 김동선 이후 두번째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야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매달 받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징역 8개

월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강정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원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됐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2010년 광주우·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을 받아왔다.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승마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연합뉴스



9월 9일(토) ▲광주KJ산악회 9월 9일(토) 장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트레킹코스, 07:30

▲광주호산회 9월 9일(토) 황석산.거망산,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강릉 정동진 패방산 산행, 바다부채길 트레킹, 01:0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장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트레킹코스, 07:3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강릉 정동진 패방산 산행, 바다부채길 트레킹, 01:0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장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트레킹코스, 07:3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강릉 정동진 패방산 산행, 바다부채길 트레킹, 01:0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장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트레킹코스, 07:3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강릉 정동진 패방산 산행, 바다부채길 트레킹, 01:0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장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트레킹코스, 07:3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강릉 정동진 패방산 산행, 바다부채길 트레킹, 01:0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장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트레킹코스, 07:3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강릉 정동진 패방산 산행, 바다부채길 트레킹, 01:00

▲광주호산회 9월 10일(일) 울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광주자연보전단산악회 9월 10일(일) 군산 선유도, 06:30



LOTTE CINEMA 종장로관	
1관	장산범
2관	청년경찰
3관	로미오의 휴일
4관	브이아이피
5관	택시운전사
6관	발레리안 : 천개행성의도시
9관	청년경찰, 아톰빅블론드
7관세너클	장산범, 흑성탈출 : 종의전쟁
8관세너클	발레리안 : 천개행성의도시, 애니멀 : 인형의도시
단체 및 대리문의 1544-8855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p>가을곡맛의이 밤</p> <p>가을곡맛의이 밤</p>	<p>여행이 음악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 <p>여행이 음악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	<p>말려낸 생선들의 뽀얀 Cinema Paradise</p> <p>말려낸 생선들의 뽀얀</p>	<p>Love & Musical 김소형 손준호의 토크 콘서트</p> <p>김소형 손준호의 토크 콘서트</p>
<p>9. 27(수) pm 7:30</p> <p>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p>9. 21(목) pm 7:30</p> <p>광주문예회관 대극장</p>	<p>9. 27(수) pm 7:30</p> <p>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p>9. 29(금) pm 7:30</p> <p>광주문예회관 소극장</p>